

불자 세상보기



이혜숙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특보

풀로써 진흙을 덮듯이 쟁론을 쉬라

사회적·개인적으로나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생태적 문제와 더불어서 4대강의 정치적 이슈, 구제역 파동으로 야기된 소·돼지의 대량 살처분 등 생명윤리적 이슈가 제기됐고, 이번에는 정치사적으로도 드물게,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과정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한 마디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이러한 갈등을 투표로써 다수자의 의견을 좇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의미에서 합의점을 가지는 것일 뿐, 나머지 다른 견해들은 언제든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간사와 인간사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데 여러가지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이다. 구체적으로 불교교단의 승가대중에게 분분한 의견과 다툼이 있을 때, 처리하는 대중공사에 관한 규정들도 있다. 율장에 7멸쟁법(七滅諍法)이 있는데, 첫째는 논쟁을 하는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혹은 삼장(三藏)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판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제3자로 하여금 당시의 사건을 진술케 함으로써 당사자의 허물을 규명·결정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여 혹은 병에 걸려서 지은 허물은 일단 잊히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재차 잘못하는지를 살펴서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넷째는 누군가(비구)에게 죄가 있다면 권위적인 힘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케 하여 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쟁론이 길어져서 그치지 않을 때는 공개 혹은 비공개로 다수결로 결정하고 여섯째, 당사자가 자기 죄를 거짓으로 가볍게 말하거나 감출 때는 승가대중과 함께 백사갈마법(白四鞞摩法: 일

의 경위를 자세히 한 번 설명하고 그 가부를 세 번 물어 결정하는 법)을 통해서 벌을 주고 자기 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곱 번째, 대중이 둘로 갈려 쟁론이 그치지 않을 때는 쌍방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각각의 상좌(대표자)가 나와서 분쟁을 마감할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처럼, 쟁론을 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불교의 승가공동체에서 시행하는 화쟁의 전통적인 지침이 오늘날 일반사회의 분쟁에서도 곧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의 공정화나 청문회 성격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화쟁 방법론이 있고, 권위나 강제로써 구성원에게 의사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민주적인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법론도 있으며, 다수결은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적인 분쟁조정 방법론도 나타나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승가공동체의 엄정한 화쟁방법론을 되돌아보면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갖가지로 대립하는 정치적 주체들이 그저 자기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민 대중에게는 애매모호한 정보와 선동적인 메시지를 주고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오히려 사회적·집단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지는 않는 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社說

공심이 태고종을 살린다

태고종이 시끄럽다. 총무원장과 중앙총회의장 등 탄핵 시도가 거듭되더니 급기야 前 총무원장 윤산 스님이 멸빈된 것이 지난주 일이다.

태고종 집행부는 멸빈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징계 당사자인 윤산 스님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변호했다. 現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윤산 스님과 50년간 이어온 인연을 외면치 못해 1년간 네 번 각서를 받으며 사정을 봐줬더니 탄핵하려 하더라”고 한탄했다. 윤산 스님과 30년 지기라는 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윤산 스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산 스님은 “소송을 통해 종단 외부인사로부터 1억원의 승소를 받았는데도 인공 스님이 이를 살

리지 못한 채 자신에게만 탓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우 스님에게는 “태도가 어느 날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종단 질서 확립과 위상 제고를 다짐하며 결의문을 내놓았다. 결의문에서 스님들은 윤산 스님에게 천중사의 양도와 동방대학원대학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극적인 문구 몇몇보다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불조(佛祖)에 부끄러움 없는 종단”이 그것이다.

사비분별의 진흥당 한가운데서 부처님의 광명을 두른 금관가가서 여염집 아이 퐁기저귀 만도 못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수십 년 지기인 윤산·인공·영우 스님의 마음마다 회심과 상생의 연꽃이 피어나길 기원한다.

두 가지의 ‘무효’에 부치는 글

법일 스님과 성호 스님이 최근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가 처리한 구족계 삭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성호 스님은 멸빈·제적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심회결원은 “구족계 삭제 조치는 구족계를 수직했는지 여부와 조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성호 스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성호 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제적 징계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며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집행기관의 전횡과 남용에 대한 제재이다. 법일 스님과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관계가 어

떻고, 성호 스님이 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시비걸기를 멈추지 않는지는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라 할지라도 나중 일이다. 사유와 형태를 비껴둔 채 살펴보면, 이번 판결은 승가의 결정이 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번복된 것이다.

결정(決定)은 공공기관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이다. 개인에게는 행동·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잘못·착오가 있어서 이번처럼 타의에 의해 번복돼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 또한 만만찮다. 무효 판결을 ‘언은’ 쪽이나 ‘당한’ 쪽이나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다’ 혹은 ‘다시’ 이루기 위해 절차부심(切齒腐心)을 그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부대중 칼럼



김종복 향원·신홍사 총괄3팀 포교사

공양간 보살님 떡볶이 맛이 불교 미래

포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포교 활성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해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군포교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군포부 기간에 불교를 잘 이해시키고 인도해 나가야 나중에 값진 보물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군장병들의 종교는 처음이자 마지막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마지막이란, 군 장병이 불교를 접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군 생활동안 종교 활동이란 명목아래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사찰예절 등을 배우게 됩니다.

전역 후에는 삶의 터전에 뛰어들면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살게 됩니다. 삶과 투쟁 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절을 찾길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 취직해야하고 결혼도 해야합니다. 직장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의 생활을 위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군 생활 때 느꼈던 사찰의 바람소리, 물소리, 법문소리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쁜 시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언젠가는 의지해야 할 곳을 찾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군 시절 불교를 접한 경험이 없다면 힘든 시기에 갑자기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 자식이 학교에 가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군 시절 내가 다니던 건봉사!’ 하며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공양간 보살님들이 군 장병들에게 간식으로 떡볶이도 해주시곤 했어. 정말 맛있었어. 그때 큰 스님이 도후 스님이셨고 부주지스님인 송담 스님도 계셨었지...”라며 아이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힘든 군시절 불교가 힘이 됐다는 아빠의 이야기에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포교입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에서의 포교가 정말 중요 합니다.

지금 절에 가보면 변화에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노보살님들입니다. 일찍이 군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군불자에게 절이 어떤 곳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주어야 나중에 아내가 절에 다녀온다고 할 때도 흔쾌히 보내 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자타일시성불(自他一時成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아니라는 뜻으로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새겨 우리가 군 포교에 힘낼 때 지금처럼 노보살님들의 불교가 아닌 젊은 불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불자들에게서는 군포교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살아있는 포교입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Advertisement for 'Saju-poli's Secret' (사주풀이의 법수) by Jeong Tong-sa. Includes text about astrology, a book cover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ubook Co., Ltd.

Advertisement for 'Saju-poli's Secret' (사주풀이의 법수) by Jeong Tong-sa. Includes text about astrology, a book cover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ubook Co., Ltd.